2022년 11월 27일 금문교회 대강절 제1주일예배 조은석 목사

목회기도 마태복음 5:11-12

하나님 나라와 환난 Kingdom of God and Tribulations 사도행전 Acts 14:19-25

19.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But Jews came from Antioch and Iconium, and having persuaded the crowds, they stoned Paul and dragged him out of the city, supposing that he was dead.

20.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But when the disciples gathered about him, he rose up and entered the city, and on the next day he went on with Barnabas to Derbe.

21.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When they had preached the gospel to that city and had made many disciples, they returned to Lystra and to Iconium and to Antioch.

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Strengthening the souls of the disciples, encouraging them to continue in the faith, and saying that through many tribulations we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And when they had appointed elders for them in every church, with prayer and fasting they committed them to the Lord in whom they had believed.

24.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Then they passed through Pisidia and came to Pamphylia.

25.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And when they had spoken the word in Perga, they went down to Attalia.

오늘은 대강절 제1주일입니다. 네 차례 대강절 주일예배를 드리고, 다섯째 주일에 "성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환영하는 기간입니다. 아울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강화하는 기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 환난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신약성경의 초대교회를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난 2천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중국의 교회는 극심한 환난 중입니다. 고난 중에 교회는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나의 찬송 고백이 울려펴집니다. 미국과 한국 땅에 평안한 교회들을 염려합니다. 확실히 환난을 피하는 길에서 교회가 쇠락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